간화선으로 얻는 행복을 논하다

선원수좌회 · 조계종부산聯, 10월 26~30일 간화선대법회

부산 홍법사서 5개 주제로 진행
'금강경' 독송, 실참 및 즉문즉설
"수행열풍은 간화선 발전의 기회"





제3회 간화선대법회 포스터와 제1회 간화선대법회 당시 모습. 명상 열풍에 맞아 세상과의 교류를 주제로 꼽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간화선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열린 법석이 마련된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현묵 · 의정, 이하 수좌회)는 10월 26~30일 부산 홍법사에서 '선, 세상을 품다'를 주제로 제3회 간화선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화선대법회는 2013년 서울 조계사, 2016년 대구 동화사에 이은 세 번째 법석으로 명상 열풍을 맞아 선과 현대사회의 조류와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는 총 5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첫날인 26일에는 대흥사 동국선원 유나 정찬 스님이 '선, 명상을 뛰어넘다'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최근 각종 명상법이 사회에서 유행하는 가운데 전통선의 수승함과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7일에는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이 '선, 현실 정토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이 설법에서는 이 사회를 정토로 가꾸기 위한 노력, 그리고 수행에 무엇이 있는지가 전해진다.

세 번째 날인 28일에는 선원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이 '선,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여기서는 선 수행은 결국 인간의 최고 행복인 깨달음을 위한 것이며 삶이 곧 수행이고, 삶 그대로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29일과 30일에는 선원수좌회 선림위원 원인 스님과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이 각각 '선, 마음을 치유하다', '선, 풍요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이번 대법회는 법문뿐만 아니라 법회 전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을 독송하고, 청법 전 30분 동안 좌선을 실참한다. 설법 후에는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 법사가 답하는 즉문즉설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은 "간화선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이를 접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대법회를 마련했다"며 "최근 명상과 힐링, 수행열풍은 간화선에는 또 다른 기회"라고 강조했다.

월암 스님은 "명상에서 얻는 선정의 행복에서 깨달음이라는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며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핵심으로 수행과 삶이 떨어지지 않는 경지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원수좌회는 봉암사와 함께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선명상 체험시설인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의정 스님은 "문경세계명상마을과 간화선대법회 등을 통해 명상과 선수행의 융합, 현대과학과 의학 등의 접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속히 시정돼야"

사노위 등, 10월 8일 노동청서 관련 기자회견

"14년 전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면, 정부와 사측이 해당 문제를 엄중 처벌하고 시정했다면 1만여 명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긴 시간 시련을 겪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 일째 서울고용노동청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0월 8일 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3개 종단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사노위 등은 "우리 종교인들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장이 아닌 농성현장으로 떠민 기업과 정부의 불법에 주목한다"며 "기업의 눈치나 보면서 지키기로 한 약속도, 법의 판결도 무시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기관의 무기력함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3대 종교인들은 정부, 사측 등에 불법파견 없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검찰에 불법파견에 관한 기소 의견 규명 △사측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국회에 △노동부 국정감사 실시 △비정규직 양산법인 파견법 및 기간제법 폐기를 위한 조치, 사측에 △불법파견 행위 공식 사과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촉구했다. 김지원 기자

조계종,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지원 나서

아름다운동행 · 복지재단, 모금사업 전개

조계종이 인도네시아 재난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 자비행에 나선다.

(재)아름다운동행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28일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에 불자 모두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모금사업을 전개한다"고 10월 10일 밝혔다.

조계종은 '자비로운 세상은 하나의 꽃입니다'란 슬로건 아래, 전국 사찰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기금모연을 시작한다.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이번 모금은 후원계좌(국민은행 008601-04-148077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입금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다.

아름다운동행과 복지재단은 모연된 기금을 긴급구호사업과 재해복구사업으로 구분해 심도있게 점검, 지원할 예정이다. (02)737-9595

아름다운동행은 "세상은 곧 하나의 꽃과 같다는 향기로운 보살행 실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원 기자

불교진흥원, 문화공간 '숨도' 운영자 모집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접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이 불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숨도'의 2019년 사업을 담당할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숨도는 청년 세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기 위해 생사의 문제, 일상 속 마음챙김 명상 등 불교 정신과 사상 전반을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진흥원은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확산시키는 등 2019년 숨도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응모자격은 불교적 소양과 철학적 방향성을 갖춘 프로그램 운영자, 그리고 명상 등 수행프로그램 및 문화 콘텐츠(강연, 전시, 행사 등) 관련 운영 경험이 있는 운영자다.

접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진흥원 사무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하면 된다. 응모자 기본사항 · 활동 내역서 각 1부와 '숨도' 운영계획서(자유양식)를 제출해야 하며,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받을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운영계획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 운영자에게는 공간 및 연간 운영비를 지원한다. (02)719-2606 김지원 기자

천태종 대충대종사 25주기 열반대재

10월 11일, 구인사서 1만여 사부대중 "각고정진" 다짐



천태종 스님들이 영전에 헌다하고 있다.

천태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종단의 중흥을 이끈 2대 종정 대충대종사의 열반 25주기를 추모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겼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0월 11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대종사 제25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열반대재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스님들과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류한우 단양군수 등 1만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추모사에서 "우리 250만 종도들은 그 우렁차고 당당하시던 가르침을 따라 각고정진과 전법교화로 종단의 발전과 성불의 인연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반대재는 총무부장 월장 스님의 사회로 △헌향, 헌다, 헌화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국운융창기원 △헌향 · 헌다 △상단권공 및 종사영반 △추모사 △추도사 △추모가(천태종 전국 연합합창단 · 마하연실내악단)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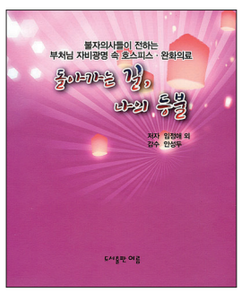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호스피스 정보 망라한 종합서적 나와

임정애 등 불자의사, 11월 1일 출판기념회

불교호스피스 이론과 방법, 현장의 이야기와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총망라한 불교호스피스 종합서적이 발간됐다.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장은 "10월 11일 서울 조계사 인근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돌아가는길, 나의등불'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말했다.



'돌아가는길, 나의등불'은 대표저자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장(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을 비롯해 김달용, 김도연 동국대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박귀원 중앙대병원 소아외과 교수,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 신성준 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 교수, 윤탁 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과 교수, 최용현 건국대병원 치과 교수 등 불자 의사들이 모여 만든 불교호스피스 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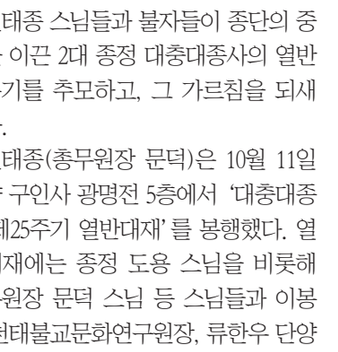
1장 불자의사들이 호스피스 의료현장에서 전하는 이야기, 2장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해야 할 사항, 3장 임종의례, 4장 환자와 보호자가 불교적으로 점검할 질문과 답변, 5장 불교호스피스 이해를 돕는 질문과 답변, 6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의례에 관한 자료집 등 관련 정보가 모두 들어있다.

임정애 본부장은 "불자의사들이 힘을 합쳐 말기환자와 보호자에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알리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처님 자비광명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펴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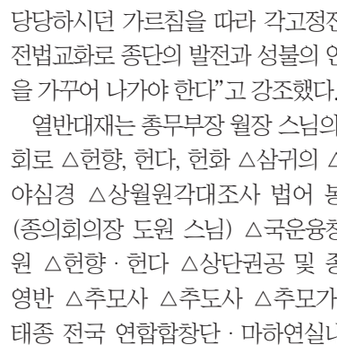
현재 이 책은 조계사와 봉은사, 불광사 등에 무료배포된 상태로, 출판기념회 후 서점 등에서 접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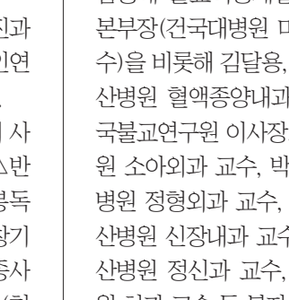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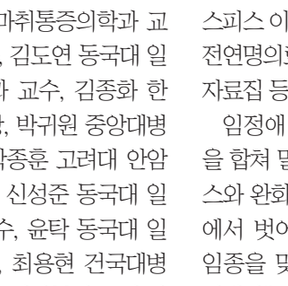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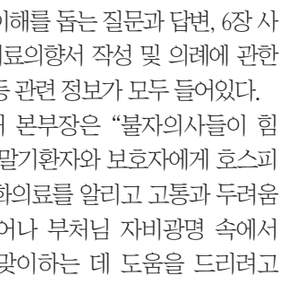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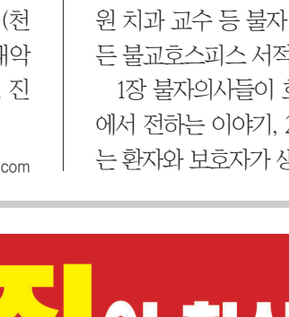
동승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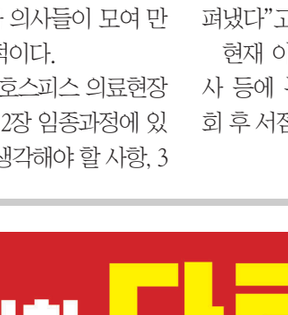
지혜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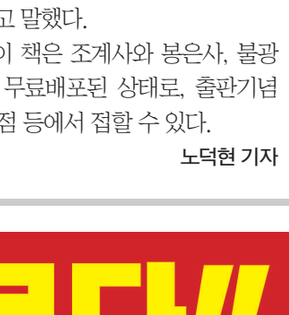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카렌다 DONGJIN SAMBO BUDDHISM CALENDAR 삼보불교 불교카렌다 불교한수막 불교인쇄물 기타불교용품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